나성범

김선빈

김태군

KIA '89 트리오', 호랑이 명예 회복 전면에 선다

나성범·김선빈·김태군, 팀 반등과 2026 시즌 승부에 핵심
최형우·박찬호 FA 이적으로 변화 속 세 선수 역할 더 막중

KIA 타이거즈의 '89 트리오'가 2026시즌 전면에 선다.

1위에서 8위로 추락한 KIA의 올 시즌 키워드는 '명예 회복'이다.

반등을 이뤄야 하는 시즌이지만 큰 변화가 있다. 타선을 굳게 지키던 '맏형' 최형우와 내야의 사령관 박찬호가 FA를 통해 이적하면서 선수단 구성에 변화가 있다.야수진의 신구격차도 여전한 고민이다.

변화 속 내부 성장을 이뤄야 하는 올 시즌, 나성범·김선빈·김태군 '89 트리오'의 활약이 절실하다.

팀 내 상황에 따라 세 선수의 역할은 더 막중해졌다.

최형우가 떠난 팀 타선에서 나성범은 팀을 대표하는 타자로서 역할을 해줘야 한다.

지난 3시즌 부상에 시달리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나성범은 평소와는 다른 훈련 방식을 통해 '풀타임' 활약을 준비하고 있다. 주장으로 팀을 이끌어 온 만큼 건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게 나성범에게 주어진 큰 숙제다.

박찬호의 이적에 따라 내야에서는 김선빈의 경험이 더 중요해졌다.

아시아쿼터로 호주 국가대표 출신 제리드 데일도 새로 합류하는 등 김선빈을 중심으로 내야의 팀워크를 잘 다지고, 2년 연속 팀실책 1위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난해 불펜 난조로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안방마님' 김태군의 알뜰한 살림이 필요하다. 적으로 만나게 되는 최형우, 박찬호와의 승부에서도 김태군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국시리즈 듀오'이기도 한 김선빈과 김태군은 '어게인 2024' 시즌을 외치고 있다.

두 선수는 KIA의 12번째 우승 순간에 가장 빛났던 선수다.

김선빈은 삼성 라이온즈와의 2024 한국시리즈에서 3개의 2루타와 1개의 3루타를 포함해 17타수 10안타, 타율 0.588을 찍었다. 불방망이로 타이거즈 불패를 이끈 김선빈은 한국시리즈 MVP 트로피도 차지했다.

'친구' 김태군도 한국시리즈의 또 다른 주연이었다. 우승 포수로 투수들을 리드한 그는 4차전에서는 개인 처음이자 한국시리즈 역사상 5번째 만루홈런을 장식하면서 데일리 MVP에 등극했다.

김선빈에 1표 차로 밀려 한국시리즈 MVP 수상에는 실패했지만 김태군은 "친구가 받아서 좋다"면서 기뻐했었다.

우승 주장이자, 우승 주역으로 정점에서 2024시즌을 마무리했던 만큼 2025시즌의 추락은 더 뼈아프다.

팀 반등을 이끌어야 하는 세 선수, 특히 김선빈과 김태군에게는 KIA와 약속된 마지막 해라는 점에서도 올 시즌이 중요하다.

김선빈은 지난 2024년을 앞두고 계약 기간 3년 총액 30억원(계약금 6억원, 연봉 18억원, 옵션 6억원)에 KIA와 두 번째 FA 계약을 맺었다.

류지혁과의 트레이드로 2023시즌 중반 삼성에서 이적한 김태군은 이해 시즌 종료를 앞두고 계약 기간 3년, 연봉 20억원 옵션 5억원 등 총 25억원에 KIA와 다년 계약 도장을 찍었다.

나란히 계약 마지막해를 보내게 된 만큼 개인적인 소회도 남다르다.

매년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렸던 김선빈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날렵해진 모습으로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김태군은 좋은 출발을 위해 개막전 상대인 SSG전 분석을 이미 시작했다.

변화의 시즌을 앞둔 KIA가 이를 악문 '89트리오'를 중심으로 반전의 가을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첫 경기 무득점 이민성호 "레바논 꼭 잡는다"

AFC U-23 아시안컵 이란전 비겨
이민성 감독 "조별리그 통과 최선"

"득점을 못 했을 뿐입니다. 레바논을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2026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아시안컵 첫판에서 이란과 비긴 이민성 한국 U-23 축구대표팀 감독은 10일 레바논을 상대로는 반드시 승점 3을 따내겠다고 다짐했다.

대표팀은 7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알샤바브 클럽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C조 1차전에서 이란과 0-0으로 비겼다.

전반에 고전하던 한국은 후반 들어 전방 압박이 성공해 여러 차례 찬스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끝내 득점으로 마무리 짓지 못하며 승점 1을 따내는 데에 만족해야 했다.

이 감독은 경기 뒤 "힘든 첫 경기였다. 강한 상대인 이란을 맞이해 승리하지 못해 아쉽지만, 선수들은 열심히 해줬다. 축구는 득점해야 하는데 득점 못 한 게 끝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레바논, 우즈베키스탄과 경기를 잘해서 조별리그를 통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 내용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원하는 부분도 나왔다"고 자평했다.

이 감독은 이어 "첫 경기라 긴장했고 전반에는 선수들이 원하는 플레이를 못 했는데 후반에 상대 빌드업을 압박하면서 위험에 빠트렸고 찬스를 만들었다. 다만 그걸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한 것뿐이지 결과가 불만족스럽지는 않다"고 했다.

그는 또 "수비수들을 칭찬해주고 싶다. 대회 전 수비가 다소 미숙했는데 정돈되는 느낌이 만족스럽다"고 평했다.

김태원이 지난 7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알샤바브 클럽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란과의 2026 AFC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C조 1차전에서 슈팅을 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제공〉

16팀이 참가하는 U-23 아시안컵은 4팀씩 4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1, 2위에 오른 8개 팀이 토너먼트를 벌여 우승을 겨루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이 감독은 "다음 경기에서도 우리의 게임 플랜을 갖고 승리하는 걸 원한다. 다음 라운드부터는 무조건 승리를 원한다. 상대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 반드시 이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74 광주일보 74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KIA 출신 위즈덤 빅리그 재도전

시애틀과 마이너 계약

지난해 KBO리그에서 35개의 홈런을 날린 전 KIA 타이거즈 외국인 선수 패트릭 위즈덤(34)이 미국프로야구 시애틀 매리너스와 마이너리그 계약했다.

미국 CBS스포츠 등은 8일 "위즈덤이 시애틀과 스프링캠프 초청권이 포함된 마이너리그 계약서에 사인했다"고 전했다.

위즈덤은 2025 한국프로야구 119경기에 출전해 홈런 3위에 올랐으나 낮은 타율(0.236)과 영양가 없는 타격으로 팬들의 애를 태웠다.

타율은 규정 타석을 채운 42명의 선수 중 최하위에 머물렀고, 득점권 타율은 시즌 타율보다도 훨씬 낮은 0.207을 기록했다.

결국 KIA는 위즈덤과 재계약하지 않고 최근 멀티플레이어 해럴드 카스트로를 영입했다.

위즈덤은 과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도 극과 극의 모습을 보였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빅리그에서 3년 연속 20홈런 이상을 날렸으나 타율은 2할 초반대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FIFA 선정 K리그 최고 몸값 선수는?

전북 강상윤 '60억원'

프로축구 전북 현대의 미드필더 강상윤(21)이 'K리그1 최고 몸값 선수' 타이틀을 지켜냈다.

국제축구연맹(FIFA) 산하 국제스포츠연구소(CIES)는 8일 세계 주요 60개 프로축구 리그 소속의 선수 시장가치를 산정해 순위를 공개했다.

CIES는 각 구단에서 시장가치가 가장 높은 선수 1명만 추려 순위를 매겼다.

지난해 7월 발표된 같은 순위에서 K리그1 1위였던 강상윤이 이번에도 순위표의 가장 높은 자리에 이름을 올렸다.

CIES는 현재 강상윤의 몸값을 최대 350만유로(약 60억원)로 책정했다.

전북 유스 영생고 출신의 강상윤은 2022년엔 전북과 준프로 계약을 맺고 부산 아이파크, 수원FC에서 임대로 뛰며 프로 무대에 안착했다.

지난해엔 전북으로 복귀해 주축 미드필더로 활약하며 34경기에서 4도움을 올렸다.

중원의 활력소 노릇을 톡톡히 해내며 전북의 더블(2관왕)에 앞장섰고 K리그1 시즌 베스트11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해 강상윤을 지도한 거스 포옛 전 전북 감독은 그를 두고 "고강도 러닝에서 항상 최상위권에 있다. 언젠간 유럽에서 뛸 선수"라고 극찬했다.

포항 스틸러스의 스트라이커 이호재가 330만유로(56억원)로 2위, 강원FC 센터백 신민하가 300만유로(51억원)로 3위에 자리했다.

이어 대전하나시티즌의 수비형 미드필더 김봉수(160만유로), 울산 HD 센터백 서명관(150만유로) 순이었다.

세계에서 시장가치가 가장 높은 선수는 스페인 FC바르셀로나의 신성 라민 야말(스페인)이었다.

야말의 몸값은 3억4310만유로, 한국 돈으로 5800억원에 달했다.

2위는 잉글랜드 맨체스터 시티의 '괴물 스트라이커' 엘링 홀란(노르웨이)으로, 예상 시장가치는 2억5510만유로였다.

/연합뉴스